

다문화가정 유·아동 자녀의 언어구사에 관한 실태조사 -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

이 상 희 (순천향대학교)

고영림 · 이현래 · 정태인 (순천향대학교)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지역 다문화가정 유·아동의 언어구사 실태 조사를 위하여 결혼 이주 다문화가정의 여성 99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의 언어구사 실태, 양육에 필요한 지원 정책을 살펴 보았다. 주요 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 수준에 대한 연구 결과는 “모르겠다.” 23.3%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본 연구에 응답한 대상자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초어를 시작하고 말을 모방하는 시기인 “1~2세”의 유아가 52.3%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어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자녀와 의사소통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에서는 한국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자녀의 엄마나라 말 구사능력과 응답자 민족별 분포와의 관계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p<.001$)하였으며, 베트남 가정과 필리핀 가정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필리핀 가정 자녀들이 엄마 나라 말을 더 잘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셋째, 자녀의 주 의사소통 대상은 어머니이며, 자녀에게 책 읽어주는 가정 내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자주 읽어주지 못한다 66.3%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구성원이 자녀에게 엄마 나라 말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연구 결과는 반대 없다가 68.6%로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자녀의 한국어 구사능력 테스트 희망여부에 관한 연구 결과는 필요 없다 52.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인식은 있지만, 외부에 다문화 가정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제주지역의 보수적인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제주지역 다문화가정의 양육에 필요한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는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의견 제시에 소극적으로 나타났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핵심어 : 다문화가정, 언어구사 실태, 제주도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 중 하나가 국가 간 교류 및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국제결혼 가정이나 외국인근로자 가정 등 다문화가정의 증가이다. 2007년 8월 한국 체류외국인이 100만 명을 돌파하여 전체인구의 2%를 차지하였으며, 2008년에는 약 1,159천명, 2009년에는 약 1,162천명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통계청, 2009). 이러한 다문화가정의 수 증가와 함께 다문화가정 자녀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결혼이민자들은 생활상의 적응과 자녀교육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외국인 어머니들이 미숙한 한국어 사용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과 소극적 태도가 자녀의 언어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이혜련·이귀옥, 2005). 또한 오성배(2007)는 다문화가정에서 양육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어머니가 몇 년간의 한국생활로 인해 의사소통에는 별다른 문제를 보이지 않더라도 한글발음과 어휘력이 능숙하지 못하여 자녀들의 언어체계 형성에 혼돈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독해와 어휘력, 쓰기, 작문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상심·정옥란(2008)는 농촌지역 다문화 가정에서 아동들의 언어발달 관련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표현언어, 수용언어 및 어휘이해력과 높은 상관을 보인 변인은 아동들의 동작성·언어성 지능 및 전체지능, 어머니의 구문의미이해력, 어휘명명하기 능력 등이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과 가장 가까워서 상호작용하는 대상이 어머니라고 볼 때 어머니의 언어능력이 아동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어머니의 결혼기간이 길어 한국어 능력이 나올수록 아동의 언어 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문화 가정 아동 중 발달지체 유아를 대상으로 한 신미주(2008)의 연구에서는 환경중심 언어중재가 다문화 가정 발달지체 유아의 요구하기 표현언어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주제로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그 결과, 환경중심 언어중재가 다문화 가정 발달지체 유아의 표현언어 발달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유승애(2009)는 다문화가정 유아 4, 5, 6세를 대상으로 유아의 듣기 및 말하기 발달 실태를 살펴보고, 배경변인인 연령, 성별, 가족구성 유형별, 기관 유형별에 따라 듣기 및 말하기 발달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문화가정 유아의 듣기 중 4·5세의 경우는 평균에 미치지 못하나, 6세의 경우 일반 유아들의 평균에 근접한 발달을 보여주었다. 한편, 다문화가정 유아의 표현언어는 모든 연령에서 일반 유아들과 비교했을 때 발달 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약간 지체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유아의 배경변인인 연령별에서 듣기 발달은 연령이 증가 할수록 연령에 부합하는 발달을 보여주었지만, 말하기에서는 연령이 증가 할수록

느린 발달 수준을 나타내었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특성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결과(오소정·김영태·김영란, 2008)에 의하면, 어머니 연령, 한국 거주 년수, 한국어 능숙정도가 아동의 언어검사 결과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우리나라 농촌지역 다문화가정이 이루어진 형태가 부부의 결혼 연령차, 사회경제적 수준, 가족 중 장애를 가진 비율, 국제 결혼형성 과정(경상북도 결혼 이민자 가족 실태조사와 정책과제, 2007)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국, 캐나다, 또는 영어와 한국어 이중언어 사용 아동들과 다른 사회 경제적 배경을 가진 집단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런 아동들에 대한 언어 발달과 관련 변인에 대한 추후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다문화 가정 유·아동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중 가정 내의 부모의 양육태도, 생활환경이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초기의 언어발달은 가족과의 상호접촉 형태나 행동 유형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언어발달의 중요한 시기인 유아동기에 적절한 언어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유·아동의 언어환경 및 언어발달 실태,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실태에 관한 연구는 언어병리학을 중심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평가나 언어발달지원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언어특성을 연구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주로 공식검사를 이용하거나 자발화를 수집하여 평균발화길이와 의미관계 등을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유·아동 자녀의 언어구사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정 양육에 필요한 지원 정책에 관하여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문제

본 연구는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구사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정 양육에 필요한 지원 정책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지역 다문화가정의 언어구사 실태를 알아본다.

둘째, 제주지역 다문화가정의 양육에 필요한 지원 정책을 알아본다.

II. 연구의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지역 다문화가정 유·아동의 언어구사 실태 조사를 위하여 결혼 이주 다문화가정의 여성 9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결혼 이주 다문화가정의 여성 정보는 <표 II-1>에 제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결혼이주민 여성의 나이는 “26~30세”가 46.5%로 가장 많았고, “25세 이하”가 28.3%, “31~35세” 16.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거주기간은 “2~4년” 58.6%, “1년 이하” 16.2%, “5~7년” 15.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편 나이는 “41~45세” 39.4%, “36~40세” 27.3%, “46~50세” 16.2%의 순으로 나타났고, 가족형태는 “부부+자녀” 37.4%, “시모+부부+자녀” 21.2%, “부부” 17.2%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월 소득은 “151만원~200만원” 34.3%, “101~150만원” 30.3%, “100만원 이하” 16.2%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민 여성의 한국어 말하기 수준은 “보통” 48.5%, “약간” 31.3%, “잘함” 13.1%의 순으로 나타났고, 한국어 읽기 수준은 “보통” 43.4%, “약간” 32.3%, “잘함” 15.2%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쓰기 수준은 “보통” 45.5%, “약간” 33.3%, “잘함” 12.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어 듣기 수준은 “보통” 43.4%, “약간” 23.2%, “잘함” 20.2%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민 여성의 한국생활 적응의 가장 어려운 점은 “언어 문제” 43.0%로 가장 많았고, “자녀문제(양육, 교육 등)” 16.7%, “경제문제(빈곤)” 11.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1> 다문화가정의 여성 정보

		구분	사례수(%)			구분	사례수(%)	
결혼 이주민 여성	본인 나이	25세 이하	28(28.3)	한국어 수준	말하기	아주잘함	4(4.0)	
		26~30세	46(46.5)			잘함	13(13.1)	
		31~35세	16(16.2)			보통	48(48.5)	
		36~40세	6(6.1)			약간	31(31.3)	
		41~45세	2(2.0)			전혀못함	0(0.0)	
		46~50세	1(1.0)			무응답	3(3.0)	
		51세 이상	0(0.0)			읽기	아주잘함	3(3.0)
		무응답	0(0.0)				잘함	15(15.2)
	남편 나이	25세 이하	0(0.0)		보통		43(43.4)	
		26~30세	0(0.0)		약간		32(32.3)	
		31~35세	4(4.0)		전혀못함		0(0.0)	
		36~40세	27(27.3)		무응답		6(6.1)	
		41~45세	39(39.4)		쓰기		아주잘함	3(3.0)
		46~50세	16(16.2)				잘함	12(12.1)
		51세 이상	12(12.1)			보통	45(45.5)	
		무응답	1(1.0)			약간	33(33.3)	
	거주 기간	1년 이하	16(16.2)			전혀못함	2(2.0)	
		2~4년	58(58.6)			무응답	4(4.0)	
		5~7년	15(15.2)			듣기	아주잘함	6(6.1)
		8~10년	3(3.0)				잘함	20(20.2)

가족 형태	11년 이상	1(1.0)	한국 생활 적용 (복수 응답)	보통	43(43.4)
	무응답	6(6.1)		약간	23(23.2)
	부부	17(17.2)		전혀못함	3(3.1)
	부부+자녀	37(37.4)		무응답	4(4.0)
	시부모+부부+자녀	14(14.1)		외로움	10(8.8)
	시모+부부+자녀	21(21.2)		가족갈등	4(3.5)
	시부+부부+자녀	6(6.1)		자녀문제(양육, 교육 등)	19(16.7)
	기타	4(4.0)		경제문제(빈곤)	13(11.4)
	무응답	0(0.0)		문화차이	5(4.4)
평균 월 소득	100만원 이하	16(16.2)	언어문제	49(43.0)	
	101~150만원	30(30.3)	음식, 기후	5(4.4)	
	151~200만원	34(34.3)	주위편견 및 차별	0(0.0)	
	201~300만원	6(6.1)	무응답	9(7.9)	
	301~400만원	3(3.0)			
	401만원 이상	0(0.0)			
	무응답	10(10.1)			

설문에 응답한 결혼 이주 여성의 민족 분포에 대한 응답결과는 총 99명중 49.5%가 “베트남”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38.4%, “조선족” 3.1%, “캄보디아” 2.0%, “태국” 2.0%, “몽골” 2.0%, “카자흐스탄” 1.0%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이주 여성 중 86.9%가 자녀가 있었고, 12.1%는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 여성의 자녀 성별은 딸이 48.8%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아들 46.5%, 무응답이 4.7%로 나타났다. 결혼 이주민 여성의 자녀 나이는 “1~2세”가 52.3%로 가장 많았고, “3~4세”가 26.7%, “5~6세”는 8.1%, 기타 “7세” 3.5%, “무응답” 5.8% 순으로서 “4세 이하”가 전체의 7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다문화가정의 엄마들 중 국내 거주기간이 4년 이하인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74.8%라는 점에서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 여성의 자녀 교육기관 이용 실태는 “집에 있다.” 45.4%, “어린이집을 다닌다.” 44.2%, “초등학교에 다닌다.” 5.8%, “유치원에 다닌다.” 2.3%, “기타” 2.3%순으로 나타났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구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개발한 설문지(2008)를 연구자가 수정 및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작성된 질문문항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10명의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조사를 토대로 응답이 없는 문항,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문항 등을 수정 보완하여 그중 타당하다고 선정된 12문항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표II.2>와 같다. 설문지문

항 구성 내용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 수준 1문항, 가정 내 사용 언어 4문항, 가정 내 엄마 나라말 인정 여부 1문항, 자녀의 한국어 구사능력 2문항, 이중언어 교육에 관한 인식 2문항, 한국어 말하기 능력과 교과학습 능력 1문항,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원정책 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설문지 문항 중 일부 문항은 복수응답과 서술형의 응답을 가능하도록 하여 다문화가정 유·아동의 언어구사 실태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문항의 특성에 따라 우선순위와 다중 선택을 요구하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항의 보기 난에는 ‘기타’를 포함시켜서 응답자의 자유로운 의견을 조사하였다.

<표 II-2> 설문지 문항 구성 내용

영역	설문 내용	설문형식	문항수
자녀의 한국어 수준	자녀의 발음, 표현력, 읽기, 받아쓰기 수준	6지선다형	1
가정 내 사용 언어	자녀와의 의사소통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	4지선다형	1
	자녀의 엄마나라 말의 수준	5지선다형	1
	자녀의 주 의사소통 대상	6지선다형	1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는 빈도	4지선다형	1
가정 내 엄마 나라말 인정 여부	자녀에게 엄마 나라말 교육을 허용하는가의 여부	4지선다형	1
자녀의 한국어 구사능력	한국어 구사능력 테스트 희망 여부	2지선다형	1
	엄마의 한국어 구사능력과 자녀의 한국어 구사능력 관계여부	4지선다형	1
이중언어 교육에 관한 인식	이중언어 교육이 한국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부모 인식	4지선다형	1
	이중언어 교육(캄보디아어, 태국어 등)에 관한 인식	4지선다형	1
한국어 말하기 능력과 교과 학습 능력	한국어 말하기 능력과 타 교과 학습능력과의 관계여부	4지선다형	1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원	다문화지원센터에 필요한 지원 정책	서술형	1

3. 자료수집 및 결과처리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지는 먼저 전화로 제주도 다문화지원센터의 협조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교사가 결혼이주민 여성을 대상으로 1 대 1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0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설문지는 총 100부 배포되고, 최종 99부를 회수하였다. 또한 어머니가 한국어 이해에 제한이 있을 경우, 한국어 교사가 통역을 실시하여 작성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적으로 약 50분 정도 소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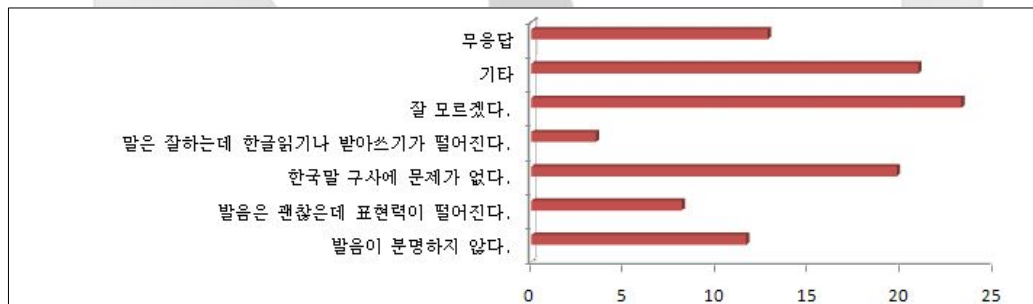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의 검토 이후, SPSS/Win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기본정보와 다문화가정 유·아동의 언어구사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량과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결혼이주 여성의 민족분포와 자녀의 엄마 나라말 구사능력과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제주지역 다문화 가정의 언어구사 실태

1) 자녀의 한국어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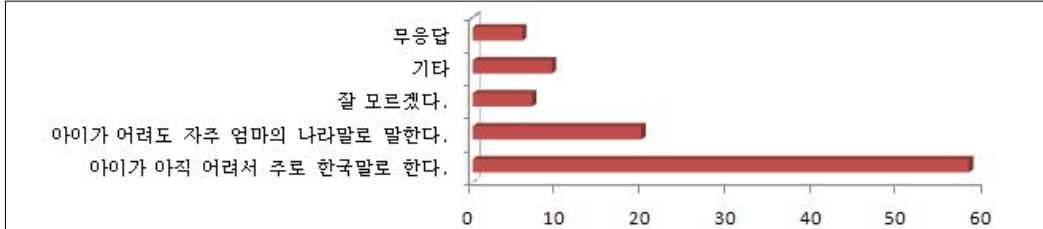
자녀의 한국어 수준에 관한 응답은 <그림 Ⅲ-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녀의 한국어 수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23.3%로 가장 많았고, “기타” 20.9%, “한국말 구사에 문제가 없다.” 19.8%, “무응답” 12.8%, “발음이 분명하지 않다.” 11.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 자녀의 한국어 수준

2) 자녀와 의사소통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

자녀와 의사소통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에 관한 응답은 <그림 Ⅲ-2>와 같다. 가정 내 양육 환경에서 결혼이주 여성의 언어사용에 대한 질문에 58.1%가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19.8%는 “아이가 어려도 제주 엄마나라 말로 말한다.”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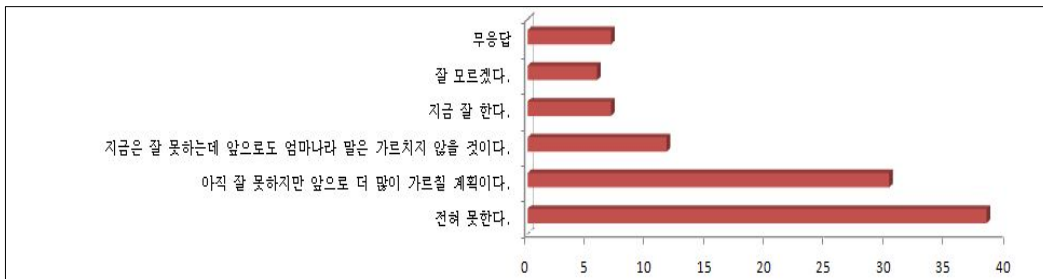


<그림 III-2> 자녀와의 의사소통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

3) 자녀의 엄마나라 말의 수준

자녀의 엄마나라 말 구사능력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그림III.3>와 같다. 자녀의 엄마나라 말 구사능력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전혀 못한다.”가 38.4%로 가장 많았고, “아직 잘 못하지만 앞으로 더 많이 가르칠 계획이다.” 30.2%, “지금은 잘 못하는데 앞으로도 엄마나라 말을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1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부정적인 응답이 80.2%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자녀의 엄마나라 말 구사능력과 응답자의 민족별 분포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III-1>과 같다.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p < .001$)하며, 베트남 가정과 필리핀 가정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필리핀 가정 자녀들이 엄마나라 말을 더 잘 구사하고 있으며, 차후 자녀에게 엄마나라 말에 대한 교육의지가 강하게 나타났다.



<그림 III-3> 자녀의 엄마나라 말의 수준

<표 III-1> 응답자 민족별 분포 * 자녀의 어머니 나라 말의 수준

		자녀 어머니 나라 말 구사 능력						전체 (%)	
		전혀 못한다	아직 잘 못하지만 앞으로 더 많이 가르칠 계획이다	지금은 잘 못하는데 앞으로 어머니 나라 말은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잘한다	잘 모르겠다	무응답		
응답자 민족별 분포	베트남	빈도 (%)	25(59.5)	12(28.6)	0(0.0)	0(0.0)	1(2.4)	4(9.5)	42(100)
	필리핀	빈도 (%)	4(11.4)	13(37.1)	9(25.7)	4(11.4)	4(11.4)	1(2.9)	35(100)
	조선족	빈도 (%)	1(33.3)	1(33.3)	1(33.3)	0(0.0)	0(0.0)	0(0.0)	3(100)
	캄보디아	빈도 (%)	1(100)	0(0.0)	0(0.0)	0(0.0)	0(0.0)	0(0.0)	1(100)
	태국	빈도 (%)	1(50.0)	0(0.0)	0(0.0)	1(50.0)	0(0.0)	0(0.0)	2(100)
	몽골	빈도 (%)	1(50.0)	0(0.0)	0(0.0)	0(0.0)	0(0.0)	1(50.0)	2(100)
	기타	빈도 (%)	0(0.0)	0(0.0)	0(0.0)	1(100)	0(0.0)	0(0.0)	1(100)
전체	빈도 (%)	33(38.4)	26(30.2)	10(11.6)	6(7.0)	5(5.8)	6(7.0)	86(100)	
카이제곱 검정		60.598**(p< .001)							

4) 자녀의 주 의사소통 대상

가정에서 자녀는 주로 누구와 이야기를 하느냐에 대한 응답은 <표III.2>와 같다. 자녀의 대화 상대는 주로 “엄마”가 70.9%,로 가장 많았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14%, “아빠”는 7%, “형제 자매”는 3.5%, “기타” 3.5%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하여 엄마가 자녀들의 언어적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결과를 고려해 보면 자녀들의 유아기 적절한 언어 및 인지 자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자녀들의 언어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표 III-2> 자녀의 주 의사소통 대상

	인원	백분율(%)
할아버지, 할머니	12	14
엄마	61	70.9
아빠	6	7
삼촌이나 고모 등 친척	0	0
형이나 오빠, 동생 등 형제자매	3	3.5
기타	3	3.5
무응답	1	1.2
합계	86	100.0

5)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는 빈도

가정에서 자녀에게 자주 책을 읽어주는가에 대한 응답은 <표 III-3>와 같다. “아니다. 자주 읽어주지 못한다.” 66.3%, “그렇다. 자주 읽어준다” 22.1%, “잘 모르겠다.” 5.8%, “기타” 3.5%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 자녀에게 책 읽어 주는 빈도

	인원	백분율(%)
그렇다. 자주 읽어준다	19	22.1
아니다. 자주 읽어주지 못한다	57	66.3
잘 모르겠다	5	5.8
기타	3	3.5
무응답	2	2.3
합계	86	100.0

6) 가정 내 어머니나 말 인정여부

가족 구성원이 자녀에게 어머니나 말을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허용하느냐에 대한 응답은 <표 III-4>와 같다. 어머니나 말 교육에 대한 가정 내 분위기에 대한 질문에 “반대없다.” 68.6%,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반대한다.” 15.1%, “아빠가 반대한다.” 8.2%, “엄마가 반대한다.” 2.3%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4> 가정 내 어머니라 말 인정여부

	인원	백분율(%)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반대한다	13	15.1
아빠가 반대한다	7	8.2
엄마가 반대한다	2	2.3
반대없다	59	68.6
무응답	5	5.8
합계	86	100.0

7) 자녀의 한국어 구사능력 테스트 희망 여부

자녀의 한국어 구사능력 테스트를 받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응답은 <표 III-5>와 같으며, 자녀의 한국어 구사능력 테스트에 관한 필요여부는 “아니다. 필요없다.” 52.3%, “그렇다. 해준다면 받겠다.” 40.7%, “무응답” 7%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5> 자녀의 한국어 구사능력 테스트 희망 여부

	인원	백분율(%)
그렇다. 해준다면 받겠다	35	40.7
아니다. 필요 없다	45	52.3
무응답	6	7.0
합계	86	100.0

8) 어머니의 한국어 구사능력과 자녀의 한국어 구사능력의 관계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한국말을 잘 못하면 아이의 한국어 능력이 일반 한국 아이들 보다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은 <표 III-6>와 같다. 응답자의 58.6%가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 자녀들의 한국어 능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나타났다. 반면에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과 관계없이 다른 가족의 언어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자녀들의 한국어 능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26.3%로 나타났다.

<표 III-6> 엄마의 한국어 구사능력과 자녀의 한국어 구사능력의 관계

	인원	백분율(%)
그렇다. 말배우기 시작하는 아기일 때는 한국말을 잘 못하게 된다	34	34.4
그렇다. 말 배우는 아기일 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아무래도 영향을 준다	24	24.2
아니다. 다른 가족이 한국말로 자주 말해주면 아나는 한국말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26	26.3
잘 모르겠다.	14	14.1
무응답	1	1.0
합계	99	100.0

9) 이중언어교육이 한국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인식

이중언어교육이 한국어 구사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인식 응답은 <표 III-7>와 같다. 이중언어교육과 한국어 구사능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0.5%가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반면에 부정적인 입장도 “그렇다. 한국말이 늦고 부정확하다.” 27.3%, “잘 모르겠다.” 20.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7> 이중언어교육이 한국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인식

	인원	백분율(%)
그렇다. 한국말이 늦고 부정확하다	27	27.3
초등학교 가기 전에는 한국말이 늦어져도 그 이후엔 둘 다 잘 할 것이다	17	17.2
어려서부터 둘 다 가르치면 둘 다 동시에 잘 할 것이다	33	33.3
잘 모르겠다.	20	20.2
무응답	2	2.0
합계	99	100.0

10) 이중언어교육(캄보디아어, 태국어 등)에 관한 인식

한국에 덜 알려진 동남아시아 소수민족 언어도 기회가 있으면 배워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에 대한 응답은 <표 III-8>와 같다. 동남아시아 소수민족 언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서 응답자의 72.7%가 동남아 소수민족 언어교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8> 이중언어교육(캄보디아어, 태국어 등에 관한 인식

	인원	백분율(%)
그렇다. 배워두면 좋을 것이다	72	72.7
아니다. 배워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7	7.1
잘 모르겠다.	18	18.2
기타	2	2.0
합계	99	100.0

11) 한국어 말하기 능력과 타 교과 학습 능력의 관계

한국어 말하기가 서툴면 다른 과목 공부도 잘 못하게 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은 <표 III-9>과 같다. 한국어 말하기 능력과 교과학습능력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8.5%가 한국어 말하기 능력과 학습능력은 비례한다고 응답하였고, 27.3%는 한국어 말하기 유창성과 학습 능력은 별개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고 “잘 모르겠다.”에 23.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9> 한국어 말하기 능력과 타 교과 학습 능력의 관계

	인원	백분율(%)
그렇다. 학습능력 전반이 떨어진다	48	48.5
아니다. 국어과목 점수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도 다른 과목은 상관없다	27	27.3
잘 모르겠다	23	23.2
무응답	1	1.0
합계	9999	100.0

2. 제주지역 다문화가정의 양육에 필요한 지원 정책

제주지역 다문화지원센터에 바라는 점이나 필요한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은 <표 III-10>과 같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복지예산 감소,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부족, 실적위주의 정책운영, 지원정책에 실효성에 의문, 관심부족 등의 이유로 인하여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의견 제시에 소극적이었으며, 소수의 의견으로서 한국어 교육(4.1%), 통역 등과 같은 의사소통 지원(2%), 경제적 빈곤에 따른 취업지원(2%), 상담(1%) 등이 제시되었다.

<표 III-10> 제주지역 다문화 가정의 양육에 필요한 지원 정책에 관한 의견

	인원	백분율(%)
무응답	90	90.9
한국어 교육	4	4.1
상담	1	1.0
의사소통	2	2.0
취업	2	2.0
합계	99	100.0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구사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정의 양육에 필요한 지원 정책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 수준은 “모르겠다.” 23.3%로 가장 많았고, “기타” 20.9%, “한국말 구사에 문제가 없다.” 19.8%, “무응답” 12.8%, “발음이 분명하지 않다.” 11.6%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와 의사소통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에서는 한국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자녀의 어머니라 말 구사능력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전혀 못한다”, “아직 잘 못하지만 앞으로 더 많이 가르칠 계획이다”, “지금은 잘 못하는데 앞으로도 어머니라 말을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의 부정적인 응답이 80.2%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자녀의 어머니라 말 구사능력에 응답자 민족별 분포와의 관계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p < .001$)하였으며, 베트남 가정과 필리핀 가정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필리핀 가정 자녀들이 어머니라 말을 더 잘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녀의 주 의사소통 대상으로 엄마>할머니와 할아버지>아빠>형제자매의 순으로 나타났다. 엄마의 한국어 수준이 낮지만, 양육 시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자녀에게 책 읽어주는 가정 내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아니다. 자주 읽어주지 못한다 66.3%로 나타나, 자녀의 언어구사력이나 학습능력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가족구성원이 자녀에게 어머니라말을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반대없다 68.6%로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자녀의 한국어 구사능력 테스트 희망여부에 관하여 아니다 필요없다 52.3%로 나타났다.

다섯째, 엄마가 한국말을 잘 못하면 아이의 한국어 능력이 일반 한국 아이들 보다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응답 58.6%가 엄마의 한국어 능력이 자녀들의 한국어 능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이중언어교육과 한국어 구사능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질

문에 응답자의 50.5%가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어 결혼이주여성으로서 이중언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동남아시아 소수민족 언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결과는 응답자의 72.7%가 동남아 소수민족 언어교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결혼이주여성으로서 세계관과 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어 말하기 능력과 교과학습능력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8.5%가 한국어 말하기 능력과 학습능력은 비례한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주지역 다문화가정의 양육에 필요한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으로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의견 제시에 소극적이었으며, 소수의 의견으로서 한국어 교육(4.1%), 통역 등과 같은 의사소통 지원(2%), 경제적 빈곤에 따른 취업지원(2%), 상담(1%)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 수준에 대한 연구 결과는 “모르겠다.” 23.3%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본 연구에 응답한 대상자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초어를 시작하고 말을 모방하는 시기인 “1~2세”의 유아가 52.3%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어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자녀와 의사소통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에서는 한국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자녀의 엄마나라 말 구사능력과 응답자 민족별 분포와의 관계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p<.001$)하였으며, 베트남 가정과 필리핀 가정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필리핀 가정 자녀들이 엄마나라 말을 더 잘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김민경, 김경은, 2009).

셋째, 자녀의 주 의사소통 대상은 어머니이며, 자녀에게 책 읽어주는 가정 내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자주 읽어주지 못한다 66.3%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구성원이 자녀에게 엄마나라 말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연구 결과는 반대없다가 68.6%로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자녀의 한국어 구사능력 테스트 희망여부에 관한 연구 결과는 필요없다 52.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인식은 있지만, 외부에 다문화 가정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제주지역의 보수적인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제주지역 다문화가정의 양육에 필요한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는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의견 제시에 소극적으로 나타났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자녀의 유·아동들의 한국어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조기에 세심한 언어적 환경을 제공하여 의사소통이 보다 정확한 표현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언어발달을 향상하기 위하여 가정 내의 부모의 양육태도, 생활 환경, 그리고 문화적 특성 등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들에게 한국어를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중언어교육을 위한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 지원과 어머니의 모국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이중 언어교육에 관한 가족 교육 시행과 홍보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대학생 멘토링, 학부모 대상 다문화 이해증진 프로그램, 다문화교육 인식 함양을 위한 교사연수 등이 제도적으로 확립되고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가 제주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민 여성을 대상으로 표집 하였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일반화시켜 적용하기에는 제한적이다. 또한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나 가족의 교육적 지지 등 기타 변인을 구체적으로 통제하지 못하여 설문 문항이 생략되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민경, 김정은 (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0(5), 119-135.
- 신미주 (2008). 환경중심 언어중재가 다문화가정 발달지체 유아의 요구하기 표현 언어에 미치는 환경 효과.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련, 이귀옥 (2005). 아동의 초기 언어발달과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간의 관계: 동사와 명사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6(5), 205-21.
- 오성배 (2007).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교육기회 실태와 대안모색. *가톨릭대학교 인간연구*, 1-15.
- 왕한석 (2007). 또 다른 한국어: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언어 적응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 *교문사*.
- 오소정, 김영태, 김영란 (2008). 서울 및 경기지역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특성과 관련변인에 대한 기초연구. *특수교육*, 8(1), 137-161.
- 유승애 (2009). 4,5,6세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발달 실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영달 (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 *연구용역과제 최종보고서*. 교육인적자원부.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8). *충남 다문화가정 유·아동의 한국어구사 실태조사 및 교육지원방안*.
- 전홍주, 배소영, 곽급주 (2008).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교육 지원의 실제와 의미: 아시아 여성과 한국 남성의 이중문화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송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09). 국가통계포럼 <http://kosis.kr/index.jsp>
- 황상심, 정옥란 (2008).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발달과 관련변인 상관연구. *언어치료연구*, 17(1), 81-102.
- Behrens, H. (2001). Cognitive-conceptual development and the acquisition of grammatical morphemes: the development of time concepts and verb tense. In M. Bowerman, S. C. Levinson(Eds.), *Language acquisition and conceptual development*. CB: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dore, L. M., and Pena, E. D. (2008). Assessment of bilinagual children for identification of language impairment: Current findings and implications for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 Education and Bilingualism*, 11(1), 1-29.
- Owens, R. (2004). *Language disorders: A functional approach to assessment and intervention* (4th ed.). Boston, MA: Allyn & Bacon.
- Owens, E. (2007). *Language development* (7th ed.) MA: Allyn & Bacon.
- Paul, R. (2008). *Language disorders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Assessment and Intervention*. St. Louis: Mosby.

Abstract

Investigating the Use of Language by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Jeju Region

Lee, Sanghee (Soonchunhyang University)

Ko, Younglim • Lee, Hyunrae • Jung, Taein (Soonchunhya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use of language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support policies required for child-rearing through 99 migrant women in order to investigate the use of language by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Jeju region. The main results and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when asked about the Korean language skills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Jeju, the most frequent response was "unsure" at 23.3%. This was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children of over half of the participants (52.3%) were 1 to 2 years old, which is when children begin to imitate and learn language.

Second, Korean was the language most frequently used by the respondents to communicate with their children.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ability to use their mother's language and respondent nationality showed that the resul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 < .001$). Compared to children of Vietnamese families, children of Filipino families were more skilled at speaking their mothers' language. This was consistent with previous research results which claimed that the child-rearing attitude of the mother in a multicultural family is related to child development. Third, children's main communication target was the mother. When asked about reading books to children, 66.3%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do not read often with their children. 68.6% of responses indicated that family members did not oppose children learning their mother's language and when asked about the need for Korean language tests for the children, 52.3% responded that they are not necessary. These results may be interpreted as a conservative attitude held in the Jeju region where family members are aware of the need for foreign language education but hesitant to be open about multicultural families.

Fourth, most respondents were reluctant to suggest support policies required for child-rearing. Future studies should review this from a variety of angles.

※ Key words : multicultural families, language use, jeju island

논문접수: 2010. 10. 30 / 수정본 접수: 2010. 12. 9 / 게재승인 : 2010. 12. 15

※ 교신저자 : Lee, Sanghee(sanglh@sch.ac.kr)